

대학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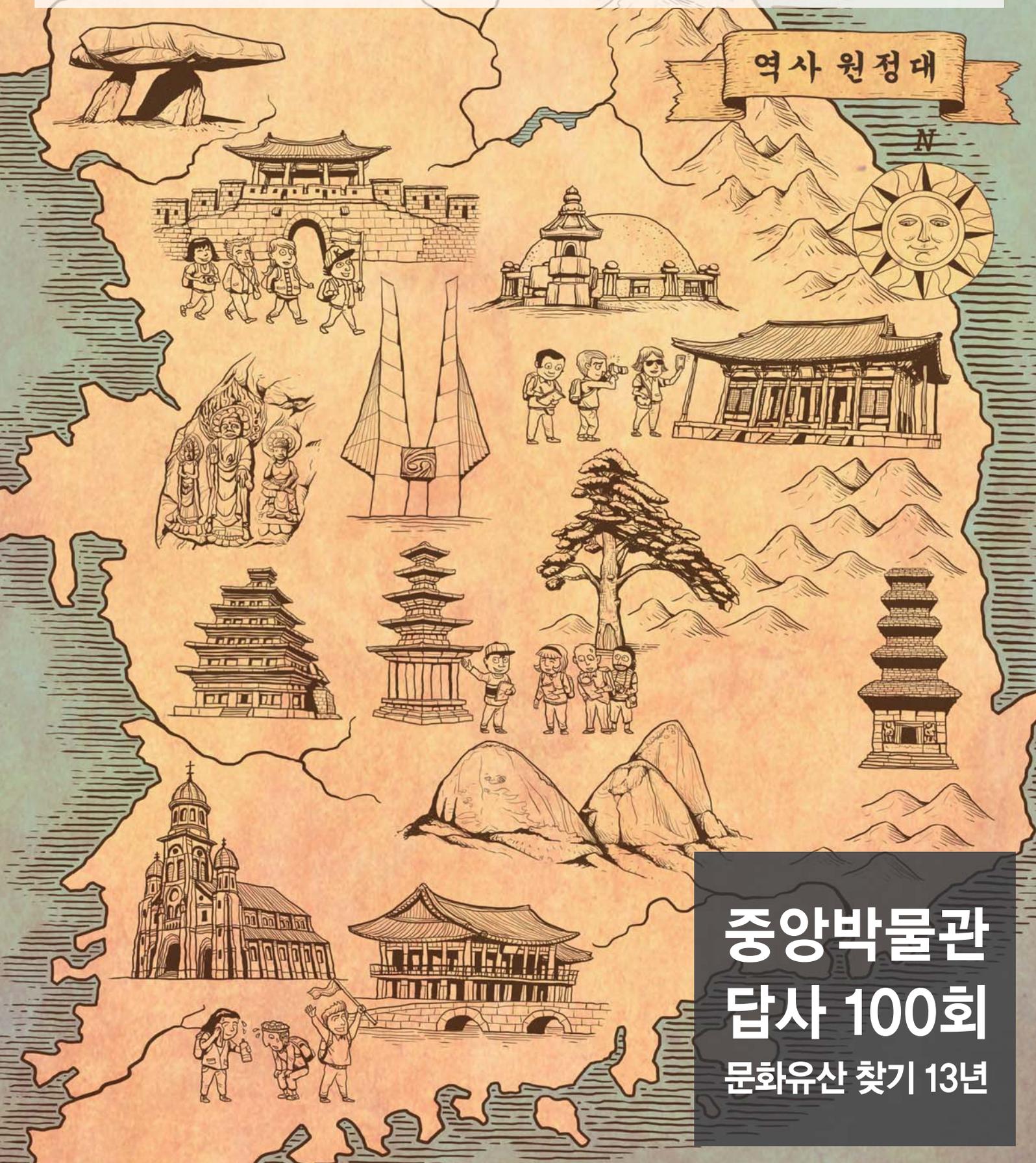
MAGAZINE

9 · 10월 합본호 | Volume 19

역사 원정대

N

중앙박물관
답사 100회
문화유산 찾기 13년





newspaper

대학주보의 최고 가치 바로 News입니다

'반드시 종이 신문'이라는 인식을 버리겠습니다.

'경희대 유일의 매체'라는 환상도 버리겠습니다.

'대학주보가 쓰면 독자는 읽는다'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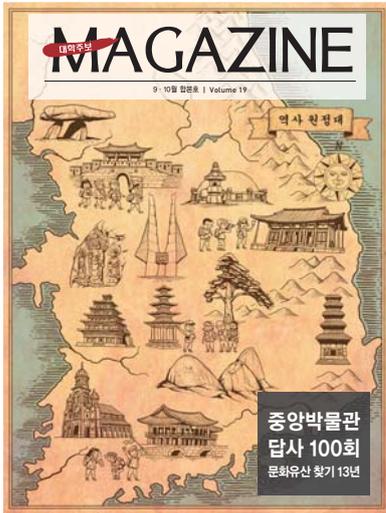
50년 묵은 오만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버린 후 남는 단 하나의 가치.

대학주보는 'News'를 유일의 가치로 삼아

100년을 이어갈 경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일러스트 : 김대호

- 04 **쑤인**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발된 우리학교 SIGMA팀
이성환(우주탐사학 석·박사 통합과정 3기) 대표
- 06 **미디어 · 여론동향**
개방이사 선임 재차 무산 8개월째 공석
- 08 **이슈추적**
개방이사 선임 관련 논란
- 12 **시선너머**
대학평가,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지표다
- 14 **커버스토리**
100회 맞이한 중앙박물관 정기문화답사
- 28 **경희의 창**
Peace BAR Festival 2013 기념 오페라 '가면무도회'
- 30 **사회공헌**
마을의 변화, 현지인과 함께 느끼다
- 34 **권말칼럼**
청춘은 정답이 없다

MAGAZINE

대학주보

Editor's Letter

가봐야 안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자라지 않는다.” 조선시대 학습교재였던 한문교양서인 《명심보감》이 전하는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경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었다. 괴테도 “경험은 유일하게 순수한 지식이다”라며 경험의 중요성을 말했다. 하지만 경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경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책과 다양한 매체의 글과 그림, 동영상의 간접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양이 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험한 것보다 생생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우리학교 중앙박물관은 우리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책 속에서만 봐왔던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난 2001년부터 마련해 왔다. ‘가봐야 안다!’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진행된 중앙박물관 정기문화답사다.

2001년 3월 파주에서 시작된 정기문화답사는 10회 중국 북경, 서안 지역을 거쳐 100회에 이르렀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진행됐다.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봐도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문화답사를 우리학교처럼 장기간 계속해온 곳도, 일반인에게까지 직접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타 대학에서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 역사가 짧거나, 학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인문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데에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이 ‘경험’이다. 정기문화답사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보고 외운 것을 넘어 직접 보고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커버스토리로 정기문화답사가 그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 발걸음을 짚어보고, 100회 행사의 동행기를 다뤄봤다. 깊은 가을, 답사의 향연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정용재 매거진 팀장 jyae91@khu.ac.kr

큐브위성, 설계부터 발사까지 우리 힘으로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발된 우리학교 SIGMA팀
이성환(우주탐사학 석·박사 통합과정 3기) 대표

글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 사진 정용재 기자 jyaee91@khu.ac.kr

지난달 16일, 2013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우리학교 SIGMA팀이 조선대, 충남대 팀과 함께 최종 3개 팀에 선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이 대회에서 SIGMA팀의 큐브위성은 앞선 두 차례의 경연을 통해 설계 검증을 받았다. SIGMA팀은 본격적인 위성 제작을 앞두고 있다.

팀 대표 이성환(우주탐사학 석·박사 통합과정 3기) 군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큐브위성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우주에 띄울 큐브위성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큐브위성이란 1kg 남짓의 무게에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한다. 이 군은 “큐브위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작은 크기 때문에 이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큐브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공위성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원리를 모두 이해해야 하고 제작 시의 테스트와 과정도 일반 위성과 같다”고 말했다. 즉, 일반 인공위성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SIGMA팀의 큐브위성이 맡은 임무는 근지구 공간에서 자기장 분포 변화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군은 “방사선과 관련된 데이터는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 위성이 발사와 운영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SIGMA팀이 대회에서 최종 선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임무의 독창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경연대회 선발을 통해 SIGMA팀은 큐브위성 제작과 발사 준비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체 제작한 위성은 2015년 러시아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이 군은 “인력 부족과 밤샘작업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띄운 위성이 우주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큐브위성이 발사에 성공해 이 군과 더불어 SIGMA팀 팀원 모두 벅찬 감동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큐브위성 작업실로
사용된 국제캠퍼스
천문대 B103호





개방이사 선임 재차 무산 8개월째 공식

지난 9월 2일부터 약 2달간 학내외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모았다. 대학주로부터 온라인 학생커뮤니티 '쿠플라자'에 올라온 글, 대학 홈페이지 Focus, 외부 미디어에서 전한 우리학교 관련 기사를 토대로 했다. 가장 큰 이슈는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와 개방이사 선임 무산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었다. 이밖에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낮은 취업률, BK21+ 사업 선정결과, 100회를 맞은 중앙박물관 문화답사 등 굵직한 일들이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우리학교와 관련된 미디어 · 여론 동향을 살펴본다.

김주애 기자 carmen10@khu.ac.kr

지난 8월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통계에서 우리학교는 52.5%의 취업률로 동일 그룹 31개 대학 중 19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대학 취업률 통계 분석-우리학교 취업률 52.5%, 진학률 10.6%/대학주보 1548호 1,3면, 2013.9.9)** 이는 지난해 54.1%보다 1.6% 줄어든 수치이며, 순위 또한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다. 학과별 취업률에서는 의학 계열과 건축 계열 학과에서 약세를 보였고, 무역 및 이과 계열에서는 강세를 보였다. 낮아진 취업률에 대해 미래정책원 서경아 팀장은 “우리학교는 취업률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예체능계 학과가 많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취업진로지원처 정진봉 팀장은 “우리학교는 학사제도가 느슨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며 학내 분위기를 지적했다.

지난 9월 11일 교육부는 BK21+ 글로벌 인재양성 유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 선정...BK21+ 글로벌 인재양성 유형/대학주보 1549호 4면, 2013.9.16)** 우리학교에서는 문용재(우주과학) 교수 연구팀의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이 선정돼, 매년 9억 2000만 원씩 7년간 지원받게 됐다. 문 교수는 “국내 유일의 우주탐사학과라는 점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특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BK21+ 글로벌 인재양성 유형에서는 총 21개 사업단이 선정됐으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2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민주단체협의회)가 서울캠 정문에서 ‘개방이사 부결 및 홍석현 기습 인사 선임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방이사 무산 긴급기자회견-개방이사 선임 재차 무산...8개월째 공식, 민단체 “해명하고 회의록 공개하라”/대학주보**



① 캠퍼스종합개발 서울캠퍼스 조감도
② 경희학원 민주단체 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

1550호 1,3면, 2013.9.30) 23일 열린 학교법인 경희학원 5차 이사회 결과에 대한 항의 성격이었다. 당시 이사회는 이사 선임을 논의했으며 그 중에서도 개방이사 선임은 4차 이사회에서 이미 한 번 무산됐던 만큼 구성원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사회 결과 개방이사 선임은 재차 무산됐으며 대신 일반이사로 중앙일보사 홍석현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A 이사는 “회의록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될 일”이라면서도 “홍석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이사 수가 너무 적은 현 상황을 빨리 벗어나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중앙박물관 문화답사가 지난 9월 28일로 100회를 맞이했다. **(중앙박물관 문화답사 100회- 답사와 함께 꿈 키워온 유치원생...내년이면 어엿한 ‘역사학도 대학생’/대학주보 1550호 4면)** 이번 답사는 ‘한양의 소통과 경계’라는 주제로, 서울 성곽을 걷는 체험으로 구성됐다. 2001년 3월 시작



된 정기문화답사를 공동 기획한 중앙박물관 김용은 계장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여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답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기문화답사는 매 답사 때마다 학내 큐레이터나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가가 들려주는 해설과 함께 유적들을 볼 수 있어 일반 대중에게도 인기가 높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빛을 발한 결과, 누적 참가자 수는 3천 756명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분석(상)-교육여건·재정 부문 17위로 2년 연속 하락/대학주보 1552호 1,3면, 2013.10.14) 우리학교는 4개의 부문 지표에서 국제화 2위(지난해 2위), 교수연구 10위(지난해 9위), 교육여건 및 재정 17위(지난해 14위), 평판·사회진출도 부문 8위(지난해 8위)를 각각 기록했다. ‘평

판·사회진출도’ 부문은 종합순위를 웃도는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화’ 부문에서도 6개의 세부지표 중 4개의 지표가 1위를 기록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은 여지없이 낮은 순위로 드러났다. 재정 부문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의미하는 ‘세입 중 납입금 비중’은 2010년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순위는 40위권 밖으로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구조의 건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교육 여건은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의 실태로 심각하게 드러났다. 2012년 40위권 밖으로 밀려난 이후 절대치는 2012년 대비 증가했으나 순위는 여전히 4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평판·사회진출도는 대학의 지속적인 대외 홍보작업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률은 여전히 40위권 밖이다. 우리학교의 대외 이미지는 좋아지고 있지만 내실에 있어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평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근 5년간 우리학교의 주요 정책 방향은 ‘교수연구’와 ‘평판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한 대학의 노력이 학생의 취업률 높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강화에도 필요하다.

쿠플라자 – “등록금이 대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등록금이 대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야?’ (2013.10.1)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빈자리 없이 수강생으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수업 듣다 보면 교수님 목소리도 안 들리고 칠판 필기도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 글이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 전 수업 학생들 대부분이 연장으로 듣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며, 내가 낸 등록금이 꽤 적힌 교육에 받는 데에 부족한 건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홈페이지 Focus –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인허가 추진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이 서울캠의 인허가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인허가 추진-서울캠, 인허가 첫 단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접수...국제캠, 구성원 소통 마무리 후 인허가 절차 진행/대학 홈페이지 Focus, 2013.10.1) 국제캠(국제캠)은 공간 최적화를 위한 구성원 소통이 마무리되는 데로 건축계획 수립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캠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따르면, 대운동장과 열주회랑, 잔디로 이뤄진 글로벌광장(기존 노천극장)의 동선이 지형의 레벨 차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대운동장과 글로벌광

장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은 글로벌타워,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가칭)문화복지회관, 기숙사 등이다. 글로벌타워는 노천극장의 소라관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진다. 대운동장 스탠드 일부와 농구장 부지에는 한의과대학과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사용할 쌍둥이 건물이 배치된다. (가칭)문화복지회관은 선승문 부근에 위치하며, 기숙사는 대운동장 스탠드의 본부석 부근에 들어선다. 대운동장과 글로벌광장 지하에는 주차장이 설계돼 차량흐름이 지하로 연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됐다. 언덕을 오르던 차량 동선은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건물 지하를 통해 글로벌광장 지하 주차장, 오비스홀 주차장으로 연결된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14년 5월까지 인허가를 취득하고 8월 중 착공, 2016년 1학기 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외부언론- 세계 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축제 열려

지난 9월 26일 평화의전당에서 제32회 UN제정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문명과 고등교육 : 큰 배움을 찾아서’를 주제로 ‘Peace BAR Festival 2013’이 열렸다. (경희대서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3’ 열려/세계일보, 2013.9.29) 이날 서울캠 본관에서는 ‘문명과 고등교육 : 문명전환기 대학의 도전과 책무’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 거대한 ‘문명적 전환’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위상, 역할 및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평화복지대학원에서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이 열려,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개방이사 선임 논란 15일, 이사회 회의록 공개돼 총학생회, '비판' 입장글 발표

이정우 기자 cyanizm@khu.ac.kr

'개방이사 선임 논란'이 지난 15일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컴팩스 총학생회는 22일 5차 회의록에 대한 입장(이하 입장)을 대자보와 인터넷 게시판에 발표하면서 ▲김용철 이사장의 책임 있는 해명 ▲조정원 이사의 '학생회 시위 사주' 발언 해명 ▲홍석현 일반이사 선임에 대한 해명 ▲3차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200억 재정 손실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법인의 이사회 운영 능력 = 총학생회는 입장에서 '이번 5차 회의록은 경희대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용철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을 통해 경희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주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부결된 이후에도 어떤 책임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비판했다.

입장 말미에서는 '이사회에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만큼 적절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학교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사회의 존재 근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후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의제가 부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 학생회 명예훼손 = 학생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부분은 특히 이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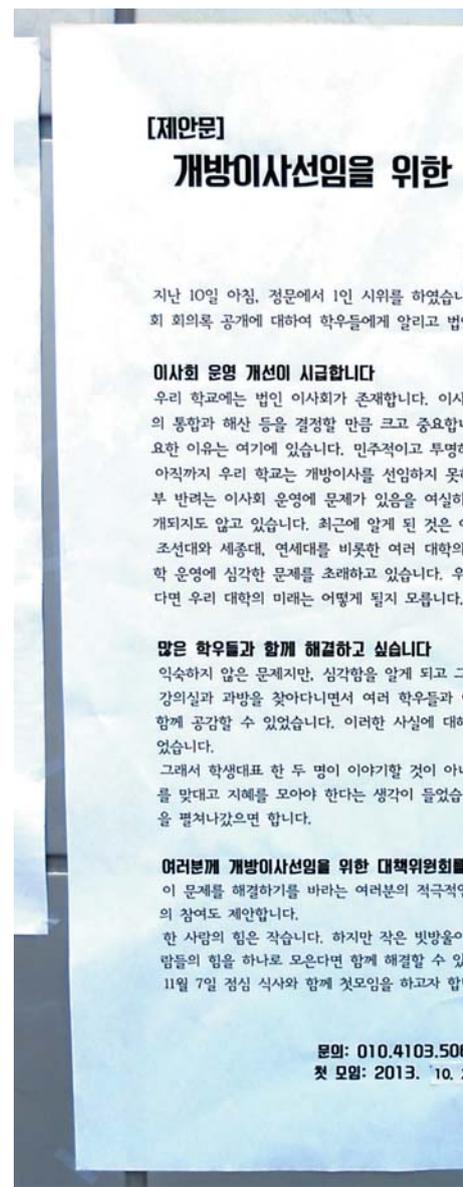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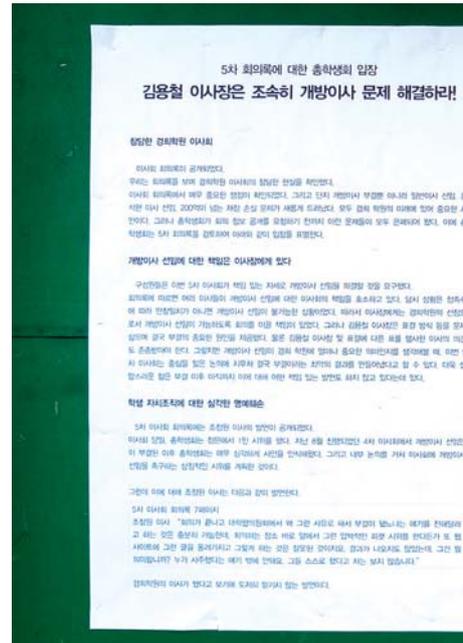
한 명인 조정원 이사의 발언과 관계된 것이다. 회의록을 보면 조정원 이사는 이사회 당일 총학생회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피켓 시위를 두고 "—중략— 누가 사주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그들 스스로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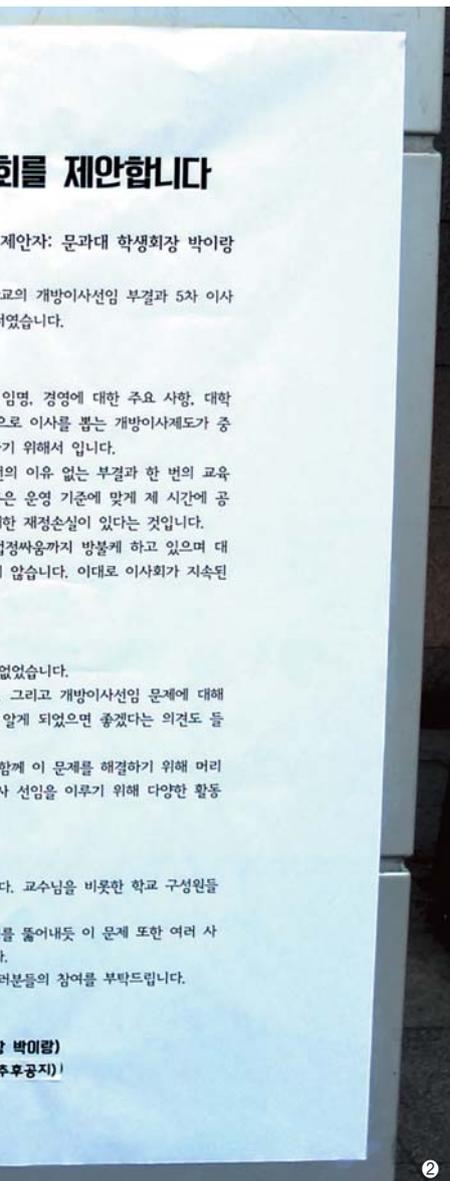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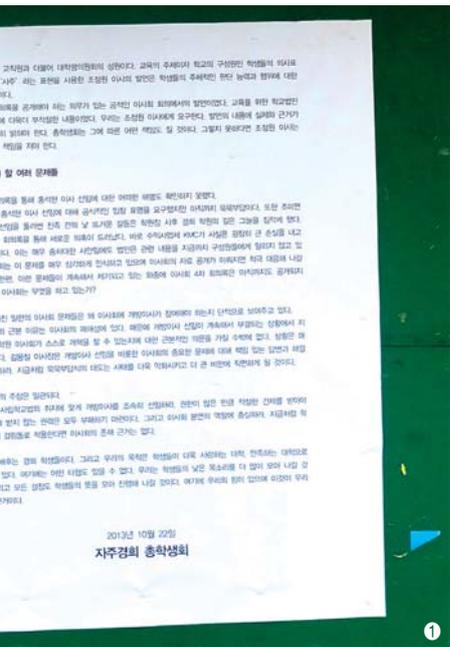
총학생회는 이 부분의 발언이 학생회 조직의 판단 능력과 행위를 심각하게 폄하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특히 그 회의록이 공개될 것을 알고 있는 이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합당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우리의 배후는 경희 학생들'이라며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이 더욱 사랑하는 대학, 만족하는 대학으로 만드는데 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해당 이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 대규모 재정손실 = 3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새롭게 불거진 법인의 수익사업체 KMC의 대규모 부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KMC가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이같은 사실을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 확보 이후 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KMC 문제는 이미 지난 학기부터 구성원 사이에 소문으로 존재해왔는데 이번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특히 KMC 문제는 대학의 재정 상황이 밝지 않은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진행해야 할 법인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개방이사'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의무화된 제도로 사학재단의 독단을 막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① 지난 22일 총학생회는 5차 회의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조속히 개방이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② 문과대학 박이랑 학생회장장은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제안했다

오히려 수익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대학평가에서도 재정 부문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우리대학의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이 구성원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는 KMC 관련 재정 손실에 대해 지난 16일 법인과 총장실로 정식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개방이사가 왜 조속히 선임되어야 하는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이번의 사태는 ‘경희학원 이사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사회와 법인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해 건강한 견제를 위해서는 개방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방이사 선임 무산에서 회의록 공개까지

개방이사 선임은 5차 이사회에 앞서, 교수의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우려의 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내고 이사회 당일에는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정주용(행정학 2006) 회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교내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이었다. 그러나 이사회 결과 개방이사 선임은 재차 무산됐으며 대신 일반이사로 중앙일보사 홍석현 회장을 선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반복된 개방이사 선임 무산 구성원 공분

5차 이사회 회의 후 이틀 뒤인 지난 달 26일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민주단체협의회)가 서울캠 정문에서 ‘개방이사 부결 및 홍석현 기습 인사 선임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방이사 선임의 반복된 무산에 대한 해명과 이사회 회의록 공개, 홍석

현 이사 선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10월 초까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자 서울캠 총학은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법인 사무처장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캠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이사회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5차 이사회 회의록은 녹취록 작성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특히 개방이사 선임이 무산된 3차, 4차 회의록 역시 면담 결과 아직 작성조차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며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반성을 촉구했다.

개방이사 선임이 무산된 것은 5차 이사회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8월 있었던 4차 이사회에서도 한 차례 개방이사 선출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면에는 경희학원의 이사 수가 정원에 비정상적으로 미달하는 구조가 있다.

특정 이사의 반복된 기권표 개방이사 선임 어려운 구조

사립학교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의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정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나, 5차 이사회 당시 현직 이사는 7명뿐이었다. 이는 우리학교 총 이사 정원이 12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재적이사 모두 만장일치해야만 의견이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4차 이사회에서는 개방이사를 뽑기 위한 무기명 투표에서 한 명의 기권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5차 이사회 또한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이사가 반드시 이번에는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를 위해 표결방식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 장현수 개방이사 후임 선임에서 특정 이사 홀로 다



른 후보를 지지해 부결되자, 최병선 개방이사 후임에 대한 논의에서는 복수의 이사가 '특정 이사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든 그를 지지하며 반대하는 타 이사가 있다면 그들도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는 아무런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기권해 최병선 개방이사 후임 논의 또한 부결됐다.

5차 이사회 회의 직후, 이와 같은 회의장 분위기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동석호 의장은 "전체 이사가 뜻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에 의해 부결되는 건 의무조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법적 조치도 고려중이지만 일단 이사회에 유감표명을 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이며 기권한 해당 이사는 경희학원 전체 구성원에게 합당한 해명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주보 제1550호 (2013.9.30.) 1면>

논란의 중심이 된 '개방이사'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의무화된 제도로 사학재단의 독단을 막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립학교법 14조 3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총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뒤야만 한다.

또한 개방이사는 학내 구성원으로 이뤄진 대학 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선출한 후보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는 총 이사 정원이 12명이므로 그 중 개방이사 3명을 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 개방이사는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었던 박찬법 이사 한 명뿐이며 현직 이사 수 또한 5차 이사회 기준으로 7명에 불과하다.

예견된 이사회 파행 운영 법인, 이사회 운영 능력 의심

이처럼 이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12월 23일부로 정호영 전 이사가 물러나면서부터다. 이후 2012년 8월 30일로 장재구 전 이사의 임기가 끝났으며 이어 올해 1월 29일 장현수, 최병선 전 개방이사의 임기가, 지난 5월에 조미연 전 이사의 임기가 끝나 총 5명의 이사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사회 자체의 대응은 미흡했다.

사립학교법 24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자리를 채워야 하며 25조에 따르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교

9월 26일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가 서울캠 정문에서 개방이사 부결과 홍석현 기습 인사 선임 규탄대회라는 이름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육부로 하여금 학교 법인의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교육부로부터 발령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2년여 간 이사 선임에 대한 논의는 커녕, 일반 이사 후보가 나온 적도 드물어 그 기간 동안 선임된 이사는 염재호 이사 한 명뿐이다.

상황이 장기화될 때 불거질 위험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별한 결격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전체 구성원과 법인·이사진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대학이 처한 현실도 녹록치 않다. Space21과 같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의료기관의 재정상황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을 앞서서 타개해나가야 할 이사진이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악화시켜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전체 이사진에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은 우리학교의 운영 주체이자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이사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사회 및 대학본부 측의 빠른 움직임을 기대해본다.